

# 특수제품으로 불황에 대처

## 종합포장전문회사 만들 계획



▲ 김진오 / 오성정밀 대표

슬리터하면 단순하게 롤제품을 자르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슬리터기도 그 특수성으로 다종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슬리터기 전문업체로 자리잡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에 이른 오성정밀기계는 그동안 업계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했다.

특수제품만을 하다보니 불황을 몰랐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운영으로 부러움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앞섰기 때문이다.

지난 18년동안 오성정밀의 노력은 슬리터기 계 생산에 한 획을 그을 만큼 개발의 역사라 할 만하다. 초창기 부속이 없던 시절 외제수리로 시작했던 우리나라 슬리터기 제작은 이때부터 기술축적에 들어가 일부 부품부터 국산화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개발의 노력이 엮들여졌다.

우리나라 슬리터기 업체들 모두가 특성있는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도 이들 업체들이 나름대로의 기술을 토대로 제작, 개발을 병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 및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제일주의를 지향함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와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최고의 품질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성정밀기계는 지난 88년 슬리터기계 제조업체로 창립되어 89년에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수출하여 일찍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OS-101R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

90년 부천시 중구 내동으로 확장 이전한 다음해 고속 슬리터기계를 개발하면서 슬리터 리와인더부를 D.C모터로 변경하여 기계의 견고성, 작업성을 배가시켰으며, 92년에는 필름전용 슬리터인 OS102모델 개발 등 꾸준한 성장을 거듭한 끝에 93년 부지 500평에 종업원 25명으로 김포읍 장기리로 증설 이전하였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계열사인 고려특수화학을 창립하였고, DNF TOUCH 방식 및 AUTO MEMORY형 개발, OS AFC(로봇장착 슬리터)개발, OS101R 대량생산시설 구축, 소폭 OS MINI 슬리터 개발(캐퍼시티 전용 슬리터) 등 매년 새로운 기계를 선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려유통을 설립, 회사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한결같이 한 기종만을 개발해온 오성정밀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파키스탄, 이집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수출비중이 40%에 이를 정도로 수출이 늘어가고 있다.

현재 50여대를 수출하고 있는 오성정밀은 월 평균 3대정도 수주를 받고 있어 올해 32억원의 매출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에서 국산기계를 인정해 주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유독히 국산기계를 비하하는 예가 아직도 심해 가끔은 실망도 크다”는 김 사장은 “대기업들이 국산기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좋은 제품만들기에 나선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이 나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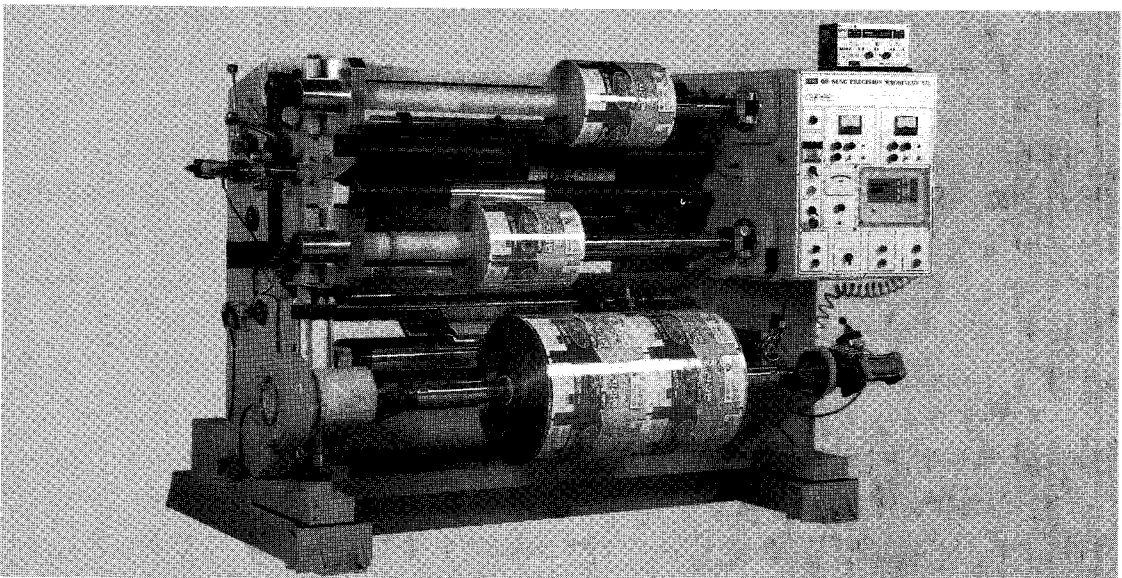
특히 수입품은 현금을 지불하고 국산제품 구매에는 장기 어음을 발행,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여기에 국산

기계라면 가격부터 내리는 식의 구매는 지향돼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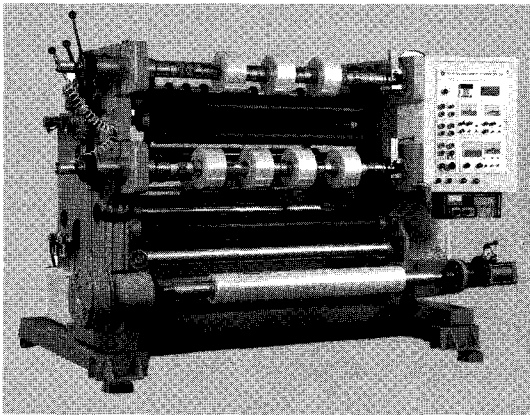
김 사장은 “제조업체, 유저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면 질 좋은 기계를 낮은 가격에 사용하는 일거 양득의 효과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여 제조업체들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재투자의 모험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저 업체들의 또하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견적을 많은 업체에서 받아 시간적 물질적 낭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리 자료를 분석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해당 업체에게만 견적을 받는다면 헛된 낭비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이 아쉬워 하는 또 하나는 임금이 비싸도 배울사람이 없어 기술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3D업종에 속하다 보니 취업하려는 사람도 적고 있다해도 장기근무하는 사람



▲ OS101R



▲ OS101AFC - 1200

이 적어 기술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주변환경이 이렇다 보니 김 사장은 한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동포장, 인쇄, 코팅 등 연포장라인이 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종합포장 전문회사를 만드는 일이다.

공장은 김 사장이 제공하고 각 분야별 소사장들이 공장에 입주해 공동 작업을 한다는 것으로 기술력의 향상은 물론 인건비 절감,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 여러가지 효과를 공동으로 거두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포장용 설비의 대량생산체제가 갖추어 지고 부분별 특수목적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국형 운영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모방은 제2의 창조를 낳는다고 하지만 김 사장은 모방을 싫어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기에 전념하겠다”는 김 사장은 원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세계적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다.

마진폭을 줄이고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박리 다매의 형태를 취하지만 기계분야에서는 어려

운 시도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구성 있고 유저들이 원하는 고품질 제품의 개발이 따라줘야 한다.

김 사장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유저들에게 맞지 않으면 실패요, 유저들이 만족해해도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두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을 김 사장은 연구 중에 있다.

오성정밀이 지금까지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이 나면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국산기계의 우수성을 입증시켰다는 장이로서의 의지다. 자신감도 있다.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대라도 정품을 만들자라는 고집으로 전직원이 한덩어리가 되어 오성정밀을 이끌고 있다.

부품 하나하나를 정품을 쓰고 A/S를 최소화 하는 기계를 만들어 이제는 국내 경쟁이 아닌 세계적인 기계를 만들어 보자는 의지다.

그 누구보다 세계 유수의 슬리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김 사장.

외국 신제품의 세부자료까지 보유하고 우리 기계와의 비교를 통해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김 사장의 의지는 꿈만이 아닐 것이다.

그가 꾸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 기계소개

오성의 대표격인 OS101R은 종이류, 셀로판 필름, 플라스틱필름 등과 같은 여러가지 재질을 슬리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원단을 기계 전면에서 착탈하는데 편리하고, 원단을 걸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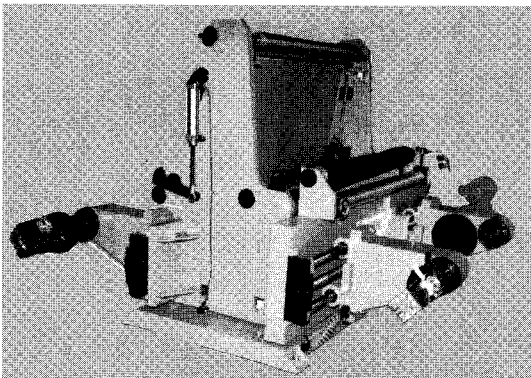
데 있어 유압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슬리팅된 제품을 취출하는데도 회전판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OS101 AFC-1200은 PET, OPP, PAPER 등을 슬리팅할 수 있게 설계된 범용 슬리터로써 대량생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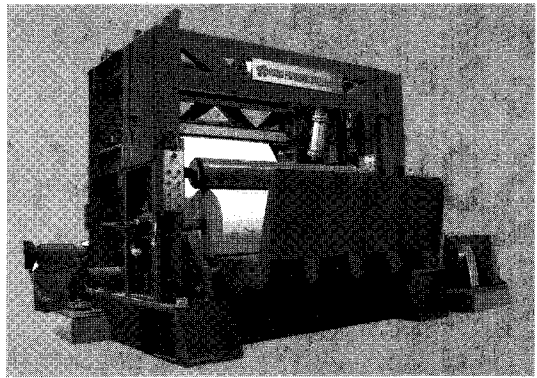
리와인더는 AIR FRICTION SHAFT를 장착시켜 정밀한 고품질의 제품을 권취할 수 있으며, 언와인더 및 컨트롤박스가 기계 전면에 장착되어 있어 작업이 용이하며 제어방식은 D.G.T방식을 채택함으로써 AUTO TENSION, SPEED UP, DOWN등을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어 초보자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OS 601은 기존 모터드라이브 방식과 달리 모든 기능이 쉽고 원활하게 작동하고 리와인더, 언와인더 부분의 정역장치를 정출력 모터로 컨트롤하게 설계되었다.

원단불량 및 이상시 또는 인쇄불량은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입력되어 목적지점을 자동검색, 불량부분을 자동으로 찾아 그 부분을 다시 역으로 자동 컨트롤되어 불량지점을 정확히 찾아주는 기능을 보유하여 기존의 방식을 육안으로 찾으



▲ OS601



▲ OS501R

면서 수동으로 역회전하는 불편함을 제거했다.

또한 제품 검품을 전문으로 리와인더하는 기종으로 설계되었으며 모터는 D.C 정출력 모터로 선정하고 있고 드라이버는 영국제 SSD 590 모델의 제어반을 삽입했다.

OS501R은 각종 종이에 적용되는 대형 고속 슬리터로 두개의 롤러 위에 감김축이 있고 그 위에 상승 롤러가 있다. 두개의 롤러 구동은 D.C모터에서 기어박스로, 기어박스에서 1번 롤러는 직결 구동되고 2번 롤러는 파우더클러치에 연결되어 있고 감김축 유닛과 상승롤러 유닛은 에어실린더에 의해 드럼 롤러와 감김축 그리고 상승 롤러 사이의 접촉압력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상승롤러가 파우더 클러치에 의해 구동되므로 제품 강도를 효율적으로 자동제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원단 유도장치와 제품취출장치 및 하장장치가 되어있어 작업 효율성이 높다.☞

오선진 기자

탐방문의 780-9782